

통합연구 제19권 1호(통권 46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

특집논문

1

한국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
A Christian Vision for Korean Society
전광식(고신대 교수, 신학과)

- I. 복음과 사회
- II. 복음의 관점에서 본 사회
- III. 한국교회의 현실
- IV.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비전
- V. 그리스도인의 직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 VI. 한국사회에서의 과제
- VII. 결론

I. 복음과 사회

광의적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회는 두 가지 위상과 과제를 지닌다. 그 하나는 교회 내적 과제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 밖 즉 사회를 위한 과제이다. 교회는 그 내부를 향해서는 예배적, 신학적, 교육적 과제를 지니고, 사회를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섬김과 사랑, 그리고 복음전도적 과제를 지닌다.

이번 학회의 주제인 '기독교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 발제에서 우리는 교회가 갖는 두 번째 과제인 '교회와 사회' 내지 '복음과 사회'의 문제를 논해 보고자 한다. 복음과 사회 - 이 양자 가운데 어떤 것에 중심을 두고 무엇이 주체였느냐에 따라 교회와 신학의 역사는 달라져 왔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주체로 하고 사회를 객체로 하여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자 내지 상대주의자들은 복음을 객체로 하고 사회나 세속학문을 주체로 하여 도리어 후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말하자면 복음을 사회적 측면에서나 시대정신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변경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로 인해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철학내지 정치이념으로 전락하고, 기독교도 한낱 인간사변의 산물인 종교철학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청종하듯이, 복음이 말하고 우리는 듣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고 사회를 읽고 세상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드러나고 노출되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갬'(히4:12)을 당하는 것이다. 그 복음 앞에 우리사회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폭로되며 뒤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음과 우리 사회가 만나도록 하여 사회속의 모든 구성원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키도록 한다.

* 이 논문은 <기독교와 한국사회>라는 제하로 개최된 제22회 기독교학문학회(천안대 서울캠퍼스, 2005년 11월)에서 기조발제논문으로 발표되었다.

II. 복음의 관점에서 본 사회

교회는 복음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면서 복음 중심적 사회해석을 가져야 한다. 복음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면 사회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첫째, 사회는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영역이다.

세상은 비록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이웃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불어 살도록 주신 은총(恩寵)의 영역이다. 이런 영역 가운데서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직분을 지니게 되고, 또 공동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다. 따라서 Helmut Thielicke는 이런 사회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생들을 살게 하신 보존의 은총이 임하는 장(場)'이라고 했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사회는 죄인들의 공동체(communio peccatorum)이다. 사회의 구성원은 타락이후 본질상 죄인들이고, 또 사회는 그런 죄인들의 죄성과 욕망이 발휘되는 무대요 장(場)이다. 세상은 결코 거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성의 문화가 난무하는 곳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무대이다.

셋째, 사회는 성도들에게 소명의 장소(locus vocatorum)이다.

성도와 교회는 영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사회 안에 있다. 그것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 안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이다(마5). 나아가 사회는 성도들에게는 땅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할 삶의 터전이요 사랑과 섬김의 영역이다. 말하자면 사회란 성도들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터전인 것이다.

넷째,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구속받아야 할 복음 전도 대상의 집합체이다. 사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섬김과 사랑의 대상만 아니라 우선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복음의 선포와 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는 복

음 전도의 현장이다.

III. 한국교회의 현실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과거 1980년대 증반까지는 신학적 노선에 따라 진보는 참여, 보수는 비참여의 길을 걸어오면서 뚜렷한 양극화의 형태를 보여왔다. 그러던 것이 그 이후 다소 변형된 형태를 보이게 되었는데, 특히 기독교 학문과 세계관 운동, 윤리문제와 경제정의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보수적 교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평신도들의 주도적인 활동이 주목되는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내적 성장과 현실적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다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사회현실에 대한 무관심속에 교회가 내적 성장에만 주력하는 자아몰두형이 있고, 반면에 소수지만 현실적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는 정치지향형이 있다. 이것은 진보나 보수와 무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와 달리 보수진영이 보수적 정치에의 관심이나 간접적 참여가 특이해 보이는 현상이다.

현재에도 진보적 교회나 신학자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세력이 추구하는 통일 이데올로기, 반외세 이데올로기, 반미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통하여 여전히 정치적 색채를 지닌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보적 교회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주의 세력들이 암시적, 명시적으로 지니고 있는 단군숭배논리, 상대주의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무속주의 등을 간파하지 못하거나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적 가치를 선호하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보아 보수적 교회는 서구적 가치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서구적 가치라고 해서 다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며, 아시아적 가치라고 해서 문명위기의 대안이 되지 않는다.

보수적 교회들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하나는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이다. 오늘날 교회들은 지나치게 자기에게 충실하려 든다. 말하자면 자기분위, 자기중심

주의를 표방한다. 교회가 그 본질이나 목적상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지만 그것의 방편은 자기를 위한 존재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존재방식으로 인해서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위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이지만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서는 교회는 세상에 있는 타자를 위한 부름받은 공동체이기도 하다.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두고 '소금과 빛'이라고 한 것은 '세상의',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충일감이나 자기만족감에서 벗어나 세상의 죽어가는 영혼들과 그들이 사는 거친 들녘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언제라도 간과되지 않아야 할 것은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은 사회가 정한 이념적 가치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현실에 대한 영적 사명의 과제를 망각하지 않으면서 내적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확립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사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목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에 대해 어떤 비전들을 지니고 있을까? 여기에는 정치적 비전, 문화적 비전, 그리고 복음 전도적 비전 등이 있을 것이다.

IV.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교회의 비전

1. 정치적 비전

목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한국사회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더 꿈꾸고 있다. 아직까지는 정당을 만든다거나 또는 직접적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첨예한 이념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강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며 또 간접적으로 정치상황에 이래저래 연루되고 있

는 실정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주권을 주창하고 또 삶의 각 영역에서처럼 정치의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나 아니면 여타의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정치나 권력의 속성상 신앙의 원리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지니는 영적 권위나 복음화의 과제에 치명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기도 하지만 또한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데, 중세사회를 되돌아 볼 때, 교회가 세속권력과 정치에 관여할 때 교회가 권력욕으로 인해 부패되거나 영적으로 퇴락되었다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 세속정치에 대해서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정치 내지 교단정치와 연루할 경우에도 교회가 그 본래적 위치에서 일탈하게 됨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역사에서보다 성경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유대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로마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¹⁾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참여하는 성경적 원리는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참여는 무엇보다 그 사회가 복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전도의 방식도 있고,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삶의 역할을 하는 방식도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선포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2 문화적 비전

1) 정치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는 Doug Bandow, *Beyond Good Intentions, : A Biblical View of Politics*, Crossway Books 1988; J. Philip, Wogaman, *Christian Perspectives on Politic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등을 참고하라.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화적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 문화건설이란 미명하에 음악과 미술, 영화와 같은 분야에서의 기독교적 활동의 강화는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경건과 신앙의 표출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기독교적 정신을 어느 정도 확산시키기도 한다. 또 이러한 기독교 문화의 장르들은 이미 기독교권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중문화에 대체할만한 문화적 충족감을 채워주므로 젊은이들을 교회내지 기독교에 지속적으로 접목시켜주는 순기능도 한다.

하지만 기독교문화화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주가치가 될 수 없다. 문화활동은 그것자체가 목적일 경우 욕망과 결부되어 새로운 상업주의나 영예주의가 등장할 수가 있고, 서양 중세의 경우처럼 성경적 신앙과 그 신앙의 인격화 내지 생활화하는 과제로부터는 멀어지면서 단지 작품화 같은 업적 또는 현상적 결과에 치중할 수 있다. 기독교 예술과 문화의 편만은 '사회의 기독교화'와 등식화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19세기 아프리카, 인도, 중국으로 온 많은 서양 선교사들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하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급급했다.²⁾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을 복음에 접목시키기보다 문명을 퇴치하고 병원과 학교를 세우며, 기독교적 서구문화를 소개하고 전하기에 급급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의 강력한 역사보다 다원주의나 상대주의의 같은 비성경적 사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진정한 복음화가 없는 문화화는 성립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의미도 별로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대로 문화적 활동 및 그 결과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접촉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하는 경우 그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복음화는 주가치이며 목적이요, 기독교 문화건설은 증가치이

2) 목회와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던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자유주의신학의 대표적 저서는 Adolf von Harnack, *Das Wesen des Christentums*, Berlin 1900 이었다.

며 수단이다. 물론 한 사회에서의 기독교 문화건설은 온전한 복음화의 자연스런 결과일 수 있다.³⁾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의 기존 문화의 변혁과 성경적 문화의 창달은 복음전도에 뒤이어오고 그것에 부수되는 중요한 과제이다.⁴⁾

3. 복음화와 기독교 세계관운동의 비전

복음화

한 사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은 무엇보다 먼저 복음화에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의 관심이었다. 그런데 사회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음화'란 결국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며 신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변화의 진정한 출발은 복음화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며, 또 그렇게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사는 데 놓인다.

과거 계몽주의는 인간의 전적타락을 믿지 않고 인간 이성의 능력을 과신했으므로 합리주의적 사회개선론과 개량주의적인 진보론을 주창했으나,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회에서의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아가 이런 신지화는 각자가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신앙을 드러내므로 생활의 신앙화로 연결되고, 그것이 가정의 신앙화, 공동체의 신앙화를 거치면서 사회의 신앙화, 국가의 신앙화로 가야 되는 것이다.

3) Kathryn Tanner, *Theories of Culture: A New Agenda for Theology*, Augsburg Fortress Pub. 1997, 는 문화의 신학의 상관관계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면서 결국 기독교문화란 하나님말씀의 제자가 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4) H.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Harper Perennial 1956 는 "Christ 'transforming' Culture" 모델을 제시한바 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흔히 선지자적 비판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바처럼 세상은 점차 기독교화 되어서 항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서 온전히 이뤄진다는 전망은 없다.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Albrecht Ritschl과 Adolf von Hamack은 인간이 노력하여 사랑과 형제애의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원죄의 깊은 영향을 간파한 매우 소박한 낙관주의에 불과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인간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을뿐더러 또 그것이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백성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촉되어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복음화가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성경이 제시하는 사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비전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도 한국사회 가운데서 이러한 복음화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민족복음화라는 구령의 열정으로 다시금 불타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는 먼저 자기변혁내지 개혁이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현실에 영적 참여를 하면서, 또 우리 사회와 민족의 영적 비전을 꿈꾸어야 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그것들에 대해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관운동

또 우리는 이 복음화의 과제와 함께 세계관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데, 먼저 이 운동에 대한 오해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세계관운동을 전개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고 멀리 하는 것은 '이원론적(二元論的)'인 태도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찬송가만 듣고 유행가나 대중가요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이원론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신앙의 세계에만 잠겨있고 대중문화를 도외시하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적으

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비판이다. 그러므로 이런 비판을 하는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에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삶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므로 그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논리이요, 기독교세계관의 본질을 오해하고 그 논리를 잘못 적용한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어찌면 신앙과 삶의 이원화(二元化)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제시하는 신앙적 가치와 삶의 방식과 세속정신과 문화가 제시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복음과 세상은 본질상 갈등하고 대립하며 도전하고 충돌한다. 따라서 이 양자를 같이 향유하는 것이 도리어 이중적(二重的)이요, 이중주의(二重主義)이다('dualism'은 흔히 '이원론(二元論)'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세계관에 있어서 이것은 '이중주의'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극복할 것으로 지적하는 '이원론'내지 '이중주의'는 영역의 이원화가 아니라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통한 그 양자의 이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기독교 세계관운동은 복음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는 복음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신앙은 심령의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신앙은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고 구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개인이나 신앙공동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신앙의 확산과 외화(外化)이다. 신앙이 인격으로 확산되고, 행동과 삶으로 확대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적 삶으로 퍼지는 신앙의 외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표면적으로만 강조하여 세상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신앙과 복음의 원리로 사는 것이 기독교세계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배가 인격과 삶으로, 그리고 현실로 그 외연을 확대해가는 것이다. 주일에 행해지던 예배가, 교회 안에서 있던 예배가 가정과 사회적 삶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말하자면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그 개인들이 서 있는 곳, 그 개인들이 사는 현실이 신앙화 되어지

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일원론의 확산을 통하여, 말하자면 신앙적 문화의 창조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이다.

V. 그리스도인의 직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사회적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재반성할 필요가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직무에 따라 성도들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갖는다는 해석들이 있어왔다.⁵⁾ 그리고 이런 직무들 가운데 특히 왕직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와 문화건설 등의 담론에 대한 신학적 배경사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는 많은 표현들은 종말론적 함의성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땅위에서 왕노릇해야 한다는 당위성내지 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의미이다. 왕직의 종말론적 함의성은 그 용어가 특히 요한계시록(특히 20:6)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보여진다. 왕직은 현재적 삶의 과제가 아니라 미래적 축복과 보상으로 약속된 유예적 직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성도들은 타락하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외침'의 선지자직과 믿음의 기도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자신까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드림'의 제사장직이 있는 것이다. 이런 복음 전도의 삶과 예배적 삶은 우선은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 두는 것이고, 나아가 그가 처한 현실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수행으로서 사회변화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5) George Stevenson, *Treatise on the Offices of Christ*, William S. Martien 1838; David T. Williams, *The Office of Christ and Its Expression in the Church: Prophet, Priest, King* (Mellen Biblical Press Series, V. 52), Mellen Biblical Press 1997을 참고하라.

VI. 한국사회에서의 과제

일제시대 한국미술을 애호했던 미술사가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는 각 민족의 예술은 각 나라의 민족성을 반영하므로, 조선의 예술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슬픔과 한(恨)의 민족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형태의 예술을, 일본이 정취(情趣)의 예술, 조선이 선(線)의 예술이 발달된 나라로 보면서 특히 조선의 곡선은 한과 비애의 아름다움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중국의 예술이 자랑하기 위함이고, 일본의 예술이 맛보이기 위함이라면 조선의 예술은 위로받기 위함이고, 이 위로는 하늘에서 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에서 종교가 발달한 근거를 찾았던 것이다.⁶⁾

우리나라는 제일 위에 높은 백두산이 있고, 그로부터 삼천리가 굽이굽이 내려와서 바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남쪽의 제일 끝에 높게 솟은 한라산이 있다. 이 두 산의 정상에는 천지연과 백록담이 있는데, 이 호수들의 모습은 마치 하늘을 향해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기다리는 형상이다. 우리민족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아름다운 선지자적 국가, 제사장적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며 종말의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복음전파의 전진기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민족 복음화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어 북한의 재 복음화 작업도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삶의 예배화, 신앙의 생활화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이런 복음적 삶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민족이 보다 거룩한 사회로 변모되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가 일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우리나라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뿐 아니라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6)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과 예술, 범우사 1989

것이다. 직금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대한 다양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온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비전 가운데는 '통일', '선진국', '경제번영', '개혁', '이념적 보수화' 등 다양한 메타담론들로 드러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갖는 비전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 꿈꾸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 생각과 예상을 훨씬 초월하여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축복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국의 모습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대해 갖고 계시는 비전이 펼쳐져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관심과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정권을 보고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도, 대중을 보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움직이시는 것은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움직이신다. 배에 승선한 많은 일반승객들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나 한사람으로 인해 배가 요동치고, 요나 한사람으로 인해 배가 고요해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고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VII. 결언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 복음화와 사회에 대한 영적 참여, 우리 민족의 영적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소위 보수진영은 신앙적, 윤리적으로는 보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현존이 '교회의 빛과 소금'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국의 현실에 대한 영적 참여, 영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의 거룩한 분노와 공의의 확산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소위 진보층은 무엇보다 성경적 신앙과 복음의 순수함을 지녀야 하며, 정치적 열정보다 복음전도적 열정을 가져야 한다. 특히 주로 진보층에서 주도하는 기성교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주의해야 한다. 그것은 영적 주적(主敵) 앞에서의 내적 분열만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사회 보편적 시각이나 잣대로 우리사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재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무엇보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영적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하지만(ecclesia semper reformanda), 하나님은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통해서라도 역사해 오셨다. 따라서 교회의 개혁을 건설적으로 유도해야 하지만 파괴적 비판이나 과도한 논쟁은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양진영이 우리 현실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현실정치적 편향성을 지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이념적 투쟁에 편승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정치적 편승은 사회현실에서 '복음의 순수성과 위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고, 진리로 무장되고,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구령의 마음과 제사장적 열정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있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국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수행하는 민족'으로서의 영적 비전의 공유와 함께 영적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현실은 늘상 영적 대리전을 치른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온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영적 참여는 복음전도와 기도운동이 병행해야 한다. 세계관 운동도 세계를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변화만 아니라 그런 변화된 관점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

력의 구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민족복음화의 열정으로 재무장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하기까지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직무, 문화화, 복음화, 복음과 사회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Offices of Christian, Evangelization, Gospel and Society

전광식 교수

독일의 레겐스부르그대, 뮌헨대,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학에서 고전학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 가지 생각』(CUP),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이문),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CUP), 『고향:그 철학적 반성』(문학과 지성사), 『신플라톤주의의 역사』(서광사), 『기독교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 그 원리와 실제』(독수리 공동체)등이 있다. 고신대 교무처장, 부총장, 총장대행을 역임하고 지금은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철학사와 신학사, 학문사와 예술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 땅에 성경적 세계관을 펼치는 DEW(사단법인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이사과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객원교수,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독수리기독교중등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